

#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배창호 특별전

한국영상자료원과 공동 주최... 코리안시네마 섹션 미니 특별전으로 진행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한국영화의 거장 배창호 감독 특별전을 마련했다.

지난 14일 전주국제영화제에 따르면 한국영상자료원과 공동 주최로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섹션 미니 특별전 '배창호 특별전: 대중성과 실험성 사이에서'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한국영화사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한 배창호 감독의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작품들을 통해 대중성과 실험성 사이를 고뇌하며 작품 활동을 해온 감독의 삶, 영화 철학, 내면 세계 등을 조명한다.

상영작으로는 다큐멘터리 1편과 배창호 감독의 작품 중 디지털로 복원한 작품 3편, 총 4개 작품이 준비돼 있다. 다큐멘터리 〈배창호의 클로즈업〉은 관동대 교수이기도 한 박장춘 감독



배창호 감독

과 배창호 감독이 감독 본인의 삶을 비롯해 작품 세계와 철학 등을 조명한 작품으로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된다.

디지털 복원작으로는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황진이〉, 〈꿈〉이 상영될 예정이다. 우선 이번 상영을 위해 최초로 4K로 디지털 복원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는 박완서 작가의 동명 소설 원작을 바탕으로 한국전쟁에서 살아남은 두 자매의 이야기를 애절하게 그린 영화다. 배창호 감독이 처음 작가주의 방식을 본격적으로 시도해 극단적으로 적은 컷 수와 느린 전개, 실험성이 돋보이는 〈황진이〉 또한 4K 디지털 버전으로 상영될 예정이다. 배우 안성기와 황신혜 출연작으로 실험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배창호 감독의 대표작 〈꿈〉은 디지털 버전으로 관객과 만난다.

한편, 이번 특별전에서 배창호 감독은 4편의 영화 상영과 더불어 초청 게스트와 함께 GV를 통해 관객과 만난다. 관련 프로그램 일정과 게스트는 추후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https://www.jonjufest.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 박성우 시인 신작 유년 동시 시리즈 '동동시' 출간

유년 동시 새로운 장 열어



베스트셀러 '아홉 살 마음 사전'의 저자 박성우 시인이 신작 유년 동시 시리즈 박성우의 동시로 첫 읽기를 출간했다. 이번 시리즈는 '발칙 없는 동동시', '발칙 있는 동동시', '물고 답하는 동동시' 등 총 세 권으로 구성됐다. 이번 동시집은 그림책에서 글책으로 넘어가는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박성우 시인의 섬세한 언어 감각과 창의적인 상상력이 담긴 동시는 아이들이 말놀이를 통해 문해력과 문학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여기에 최미란 화가의 익살스럽고 개성 넘치는 그림이 더해져 독창적인 동시 그림책이 완성됐다.

'동동시'란 초등학교생뿐만 아니라 취학 전 아이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유년기 맞춤 동시로, 박성우 시인은 이를 '동동시'라

명명했다. 아이들이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소리 내어 말놀이하며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동동시 시리즈는 책을 읽기 시작하는 어린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문학적 즐거움을 선사하는 새로운 형식의 동시집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 관광스타트업 공모전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025 관광스타트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관광산업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 접수는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touraz.kr)'를 통해 진행되며, 1차 서류 심사 및 2차 발표심사를 거쳐 5월 초에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지원 자격은 예비, 초기, 성장, 지역상생형 기업 등 4가지 분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비 창업자는 도내 신규 창업을 준비하는 자 △초기 기업은 도내 창업 3년 미만의 기업 △성장 기업은 창업 3년 이상의 기업 △지역상생형 기업은 타지역에서 1년 이상의 사업 경험이 있는 기업 중 전북 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

아이템을 보유 기업 등이다.

지원 분야는 관광 체험 서비스, 실감형 관광 콘텐츠, 관광인프라, 관광 다테크, 지역 특화 콘텐츠, 문화?예술 융합 등 총 6개로 이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 전 한국국가데이터(KoDATA)에 기업등록을 마쳐야 한다(예비창업자 제외).

15개사 내외를 선발할 계획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원된다.

또한 역량 강화 교육 및 자문(컨설팅), 국내외 전시박람회 및 투자 설명회(로드쇼) 참가 지원, 투자 유치를 위한 시연행사(데모데이) 및 공동모금(클라우드펀딩) 참가 기회 제공,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시설 무료 이용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한편, 오는 20일 오전 10시 전북관광기업지원



센터에서 진행되는 아카데미·컨설팅에 참여한 기업과 만 30세 이하 청년 창업자에게는 공모전 신청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장은성 기자

## 전주문화재단, 27일까지 '우리동네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은 14~27일까지 '우리동네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생활문화예술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자격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전주시 소재의 동네 문화공간 또는 생활문화 활동을 하는 단체다. 다만, 2023년과 2024년 연속 선정된 단체는 지원할 수 없다.

심사를 통해 총 10개 단체를 선정, 단체당 운영비 3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정읍시, 2006년생 청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정읍시가 2006년생 청년들의 문화예술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시행한다. 연극, 뮤지컬, 전시, 콘서트 관람을 위한 1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선착순 지급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읍시에 주소를 둔 2006년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올해는 19세 청년 중 36.2%(인 309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협력 예매처인 인터파크 또는 YES24에서 사용할 수 있는 1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한다.

신청 방법은 협력 예매처에서 회원 가입 후,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차 신청 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단, 6월 말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회수되므로 신청 후 빠른 사용이 권장된다.

이화수 시장은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청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문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19세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 혜택을 누리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수=김대환 기자

## '부안, 꿈꾸는 놀이터' 한국동시축제

부안군문화재단, 5월 17일 대회·체험·공연·전시 등 프로그램 다채

부안군문화재단은 제3회 한국동시축제(이하 동시축제)를 오는 5월 17일 부안 석정문학관 및 청구원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차를 맞는 동시축제는 어린이와 어른, 일반인과 문화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문화예술축제로 대회, 체험, 공연, 전시 등 주로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부안, 꿈꾸는 놀이터'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남녀노소 모두 동심으로 돌아가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동시 백일장, 가족 창작동시 낭송대회, 어린이 시인학교 경연대회, 동심놀이터(미술·레크리에이션), 달리는 책버스, 동시 작가와 함께하는 이야기극장, 도서관 체험부스, 우리가족 프리마켓, 특별공연 등이 있다.

특히 올해는 부안교육지원청, 부안 소재 초등학교, 부안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행정기관과 지역단체, 문화인·문화단체 등 다양한 민간단체와 협력해 기획 단계부터 지역 특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재단 관계자는 "동시축제는 동시를 매개로 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기며 창의적인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문화예술의 장이자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돋보이는 축제로 만들고자 한다"며 "이번 축제가 지



역 주민과 부안을 찾아온 이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우리 부안의 문화예술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시 백일장과 가족 창작동시 낭송대회 등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은 오는 4월 2일부터 재단 누리집(<https://www.bacf.or.kr>)을 통해 모집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사업담당자(063-584-6212)에게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괄난 항의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